

사회

기초수급 '억울한 탈락' 286세대 구제

광주 5개 자치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따라

재산 소득환원제 등 걸려 일부는 혜택 소외 여전

#1. 홀로 생활하는 최순영(여·78·광주시 서구·가림)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따로 거주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29)의 월 소득이 20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194만원을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최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노력연급 9만1200원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최씨는 최근 다시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신과 같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2. 지난해 4월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던 독거노인 김수영(72·광주시 북구·가림)씨도 올해 다시 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최근 수급비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부양의무자인 아들(39)의 월 소득이 최고 기준인 190여만원에 넘어서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80~90여만원 정도 늘어 대상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새롭게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제와 재산 소득환원제가 수급자들의 근로·자활 의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을 넘어서지 않음에 따라 286세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 대다수는 수급권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각 자치구는 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전체 수급자(3만2000세대) 세대의 2~4%가량 될 것으로 예상, 주민센터에 대상자 선정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탈락의 위기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은 극히 일부다. 아직도 수급

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제와 재산 소득환원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어 다수의 수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 4788세대의 급여가 중지됐고, 1만2977세대의 급여가 삭감됐다. 그나마 이 가운데 5266세대는 이달 초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이나 부양과피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도 1만세대 중 일부는 왕래조차 없는 가족의 소득 등으로 인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이 없어 왕래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는 최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1절 곳곳 행사 시·도 기념식도

제93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 남지역 곳곳에서 기념식과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3월1일 오전 9시40분 광주공원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를 한다. 이어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990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독립유공자·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900명의 참여 속에 3·1절 기념식을 갖는다.

목포시는 이날 유달산 시민의 종각에서 '3·1운동 기념 시민의 종 타종'을 가지며, 순천시도 낙안읍성과 순천 문화원에서 기념행사를 치른다. 또 강진군은 4·4독립만세 운동 재현 행사를 열어 영암군은 만세삼창 및 건강경기대회를, 화순군은 독립운동가 양양목 선생 추모 행사를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3분 / 해질 10시 44분 / 달출몰 18시 27분 / 달몰 00시 26분

아침 안개 주의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으나 대체로 맑다.

구분	구름조도	기온
광주	구름조도 1/13C	1/11C
목포	구름조도 1/11C	0.5~2.0m
여수	구름조도 4/11C	-1/13C
나주	구름조도 2/12C	2/12C
완도	구름조도 2/12C	0/12C
강진	구름조도 0/12C	-1/13C
해남	구름조도 0/12C	1/14C
장흥	구름조도 1/14C	2/12C
순천	구름조도 1/12C	1/12C
영광	구름조도 1/12C	-1/12C
진도	구름조도 1/10C	-3/12C
남원	구름조도 4/9C	
홍산도	구름조도 4/9C	

〈오전〉 바다

구분	풍향	파고	해상상태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관심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보통		낮음

〈오후〉 바다

구분	풍향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목포 06:29	11:3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여수 01:00	06: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12:22	19:1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3/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5/10	5/9	4/11	4/8	5/9	5/10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광주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28일 매곡동 하백로길의 광주시 제3호로 지정된 김용학 가옥에서 문화재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학칙 제·개정도 학생인권조례 따라야”

광주교육청, 학교장 자율 맞대응

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광주일보 2월21일 7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광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보고, '학교장이 조례를 위반하는 학칙을 제·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28일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의 제·개정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해 광주시교육청의 역할 과제인 학생인

권조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학교장은 학칙 제·개정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해도 위법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에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없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들이 교과부가 개정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하면서 두발의 전면자유 등 광주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출신 시인 이성부씨 별세

'지리산' '야간산행'의 시인 이성부가 28일 고단한 삶의 산행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남도의 서정을 아름다운 시어에 담아냈던 이성부 시인이 이날 오전 8시 지방민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관련기사 12면>

1942년 광주 출생인 그는 1960년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우리들의 양식' '빈산 뒤에 두고'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다' '우리 앞

이 모두 길이다' 등의 시집을 냈다. 또 '저 바위도 입을 열어' '산길' '눈뜨면 섬과 산이 다가오네' 등의 산문집을 발표했고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편운문학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수아씨, 아들 준구씨, 딸 슬기·슬인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4호, 발인은 3월 1일,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원묘지.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SINCE 1982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www.kjhr.com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 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에 **휘나 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 휘나 핫 온열경영이란? 휘나 핫 반신욕+삼백초 효소+효소 휘나 단식+휘림참숯물+식이요법

휘나 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 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배 증진되는 휘나 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 핫은 30 여종 광물질 (특히 희귀 금속 10 - 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 제작한 슈퍼 블랙 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 핫 반신욕기는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 휘나 핫 반신욕 카레오 집중 - 노인정, 복지관, 경로당, 사할, 교회, 휘나 핫 반신욕기 증정할 분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 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 휘림건강 대표리, 취급점, 영업사원 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 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면,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 건강법
무용분사 | 감상액 100ml | 5,000원
[전국 유명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만년 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숯나무 진액 참숯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숯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숯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공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로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숯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숯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숯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